

홍해

2024/여름호

Red Sea Mission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가서2:12)

Flowers appear on the earth: the season of singing has come, the cooing of doves is heard in our land. Song of Songs 2:12



19947 E. Crestline Pl. Centennial, CO 80015
Tel: 303-669-1001
redseamission@gmail.com

홍해선교회

자문위원

강위조 박사(전컬럼비아대학교수)
정성욱 박사(현덴버신학교교수)
최기도 목사(전알제리선교사)

대표

조완길 목사(홍해선교회)

한국대표

홍계현 목사(한마음비전교회)

사무총장

김병수 목사(믿음교회)

운영이사

김병수 목사(믿음교회)
권인숙 목사(새문교회)
이명교 목사(한빛교회)
전담양 목사(임마누엘교회)
조완길 목사(홍해선교회)

선교사

K 선교사(S국)
S 선교사(M국)
C 선교사(E국)

후원교회

믿음교회(김병수목사)
새문교회(권인숙목사)
은강교회(김용민목사)
행복한교회(전형진목사)
홍해선교회(조완길목사)

후원회원

강신정사모. 김용환집사.
김은경집사. 나혜란집사
이승우회계사 이선민권사
정영숙사모. 조완길목사.
최기도목사. 최충현성도



콜로라도주꽃 콜럼바인(조은희사진)

CONTENTS

- 03 만족지연능력(조완길)
- 06 시상 소감(전담양)
- 10 하차감 구리고 나의 회개(이명교)
- 12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심는 사람들(김병수)
- 15 이란 정국의 불확실성(공일주)
- 19 기독교 세계관(조완길)
- 23 검은 아프리카 선교(노영환)
- 25 한국 세미나 성료(조완길)
- 27 케냐 Kang 선교사 보고
- 29 E국 Cho 선교사 보고
- 31 Song 선교사 모로코 선교 계획
- 33 중보기도 제목
- 34 중보기도 제목



조완길 목사(D.Miss)
홍해선교회대표

본문: 행1:4; 사30:18

제목: 만족지연능력

심리학자 월터 미셀이 고안한 마시멜로 실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험자가 3-4세 정도의 아이들에게 각자의 방에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주고 15분간 먹지 않고 참으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결과 30%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기다렸다가 두개의 마시멜로를 먹었습니다. 이후 두개의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을 추적해서 관찰해보니 청소년 시절에 리더십,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우수했고, 정서지능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졌던 자제력이 인생의 성공을 예측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 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실험이 있는 후 ‘만족지연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은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긴 인생을 살면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최후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큰 위로의 날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중에 실망도 하고, 낙심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성숙을 위한 진통입니다.

홍해 3

더 깊은 영성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행1:4).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해 힘썼습니다. 그들은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맛디아를 사도로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했습니다(행1:24-26). 조직을 보완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키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초대 교회의 주역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사울을 부르신 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영성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교제의 시간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나눔과 감사로 반응하는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상호 작용이 아니라 깊은 나눔이 있는 교제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실패와 상처를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일들은 서로를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런 덕목은 성도들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교제할 때에 상호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은 있습니다. 한 지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돕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 때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시142:4).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책임을 나누며, 서로를 돕는 것이 교제의 목적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이런 교제가 있었습니다.

기다림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은혜(행1:4-5),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은혜(눅2:25),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은혜(롬8:22-25)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내에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내의 과정이 행복해야 결과도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다리던 10일이 인간의 시간(크로노스 Kronos)이었다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시간(카이로스, Kairos)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오순절은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 한 것이며, 초인종 초국가적인 교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났습니다. 열다섯 나라 이상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대인 방언을 통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천명의 그리스도인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사30:18).

이 말씀에 의하면 기다림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만족지연능력은 심리학에서만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성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지혜입니다.



전담양 목사

임마누엘교회담임목사. 임마누엘기도원원장.
CBS TV 강단설교자. 시인. 한국목양문학회장.
홍해선교회이사.

시상 소감

제가 시인으로 삶을 시작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이 시가 들려지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도 시인으로서는 최고의 영예인 문학 대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을 받으면서, 저는 정말 기뻐지만,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제게 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에서 자녀로 변화 받은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구원의 상을 들고 시상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시를 받는 내가 아니라 구원의 상을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그 감격을 고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눈물 나도록 감격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염려를 주던 사단의 세력은 이미 무노렸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은혜의 만나를 맛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늘 이 구원의 상 자녀의 상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이상을 기쁘게 받고, 소중한 것을 말하듯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매일의 풍경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채색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채웁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조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소 짓는 아름다운 기념사진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려모았던 당신이
내 앞에 서있으니
가슴이 벅차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서려 하고 있지만

잠시 동안
이 마음의 불륨을 줄여놓고
담담히 소감을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한 마리 나비처럼
생명으로 날개치는 당신의 영혼이
사무치게 아름다워서
이 한 몸 저 사망의 나무에
못 박아

당신의 영혼이 생명의 꽃밭에서 춤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아버지,
깨지기 쉬운 마음을
권능으로 붙드시는 영께 감사드리며

일그러진 달과 같은
저들의 영혼을 빛으로 바꾸신
그 전능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 감격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부디 이 상을 받는
이 자유한 영혼을 잊지 말아주시고
사랑하시되
연초부터 연말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악한 사단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둠에
가슴을 쓸어내리지 말고

매일 이슬처럼 마음에 뿌려주시는
은혜의 만나를 맛보고
감사의 악상을 떠올려
아버지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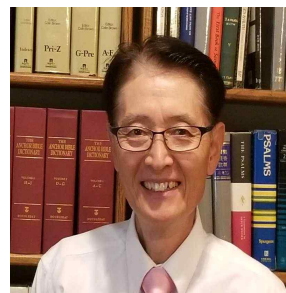
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당신에게 이 상을

기쁘게 드립니다



하차감, 그리고 나의 회개

‘하차감.’ 필자가 미문해서인지는 몰라도 몇 개월 전 이 단어를 처음 보았을 때 이런 단어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문장 속에 승차감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 하차감(下車感)이 차에서 내릴 때의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승차감은 자동차를 타며 느끼는 편안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자동차의 진동, 소음, 차 안 공간의 쾌적함, 좌석의 편안함 등의 요소가 승차감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차감이 무엇일까 하여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를 인용합니다. “하차감이란 차에서 내릴때 오너가 느끼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유독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생겨난 말이다.

국산차가 아닌 수입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남들의 시선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현실이다.”

자동차에서 내릴 때 집중되는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이 하차감이라니 한국인이 명품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이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인용해 2022년 한국인 명품 소비액은 168억 달러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1년보다 24% 증가한 수치이고 한국인 1인당으로 따져보면 325달러를 명품에 소비한 것입니다. 미국 280달러, 중국 55달러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간 한국경제는 ‘활황’인 경우가 없었고 계속해서 경
고음이 들려왔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인의 시선에 지
나치게 신경 쓰는 문화가 한국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신앙의 척도를 단순히 외관으로 보이는 건강과 물질
의 많음, 크기와 수를 보고 판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의 의를 이
루는 것보다 겉모습과 물질적 풍요로 삼는, 즉 겉모습 단장을 하
나님과 관계보다 중요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생각도 들
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유명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
다. “많은 경우 고3 학생들이 주일예배에 나가지 않게 하는 사
람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엄마들입니다. 고3 아들이나 딸이 주일
예배에 나가려 하면 ‘야, 정신 나갔니! 지금이 어느 땐데 교회에
나가? 가고 싶은 대학에 붙고나서 교회에 나가도 되니 집에서 공
부나 해!’ 라고 말하는 엄마들입니다.”

유명 대학이나 의과대학 등에 자녀를 입학시킨 것이 하나님의 복
을 받은 것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부모들, 이들은 겉모습을 자랑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꼭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부모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관을 화려한 세상의 겉모
습과 등치하는 행태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의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여
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
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
입니다.” (벧전 3:3-4, 새번역) 40여년을 목회하며 성도들의 ‘속
마음 단장’을 위해 복음의 가치관을 더 설교하고 더 가르치고,
이를 위해 더 기도하지 않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
니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김병수 목사
믿음장로교회 담임
본회 사무총장

메마른 땅에 생명을 심는 사람들

올해 6 월 첫번째 주에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믿음장로교회와 덴버제일감리교회가 얼마 전에 그 곳에 성
전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 성전 건물이 완공
되어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해 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연간 국민소득이 \$2000 이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곳을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가는 곳
마다 사는 형편들이 우리나라의 70년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
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만큼은 외국인인 우리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순수하게 보였습니다. 동네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여
럿 만나 보았는데 눈이 크고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구걸을 해서 살아가고 있
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에게도 참된
꿈과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모
든 형편이 가장 열악하고 선교사들이 잘 가지 않는 나라를 일부러
선택해서 그 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곳에 있
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생명을 심는 사역을 20 년 가까이 하고 있었
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독서 교실을
운영하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마을을 방문해서 사람들
을 심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를 하는 사
역 등등을 너무나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곳 사람들을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이었습니다. 생활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그 곳에서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그렇게 열심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와 같은 헌신에 감동이 되어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를 포함해서 텐버에서 방문한 다섯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선교사님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왔습니다. 막상 성전봉헌식을 가지려고 하니 많은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선교사님이 그 동안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건축 인부들을 사서 직접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곳은 더운 열대지방이기도 하고, 인부들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자재도 좋지 않았습니니다. 건축이 모든 면에서 힘들었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건축 쓰레기와 치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다섯 명의 성도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시작하자마자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간 다섯 명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여러 건축 일들을 도와주고 왔습니니다. 3 일에 걸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왔습니니다. 다섯 명의 남자들이 힘을 합하니 못할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속도에 거기에 있는 인부들도 놀라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삼일 동안 일을 하자 교회 주변 환경이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면서 힘든 표정들이었는데, 다섯 명의 남자들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니다. 건축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마을을 방문하는 사역에 함께 참여해서 가정들을 심방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3 일을 지내는 동안 마침내 성전 봉헌식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초청하고, 지인들을 초청하고, 건축에 참여했

던 분들을 초청하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석하고,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동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곳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헌판식과 테이프 커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했는데 한국에서 간 사람들과 그곳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무리하고 떠날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선교사님 부부와 작별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떠올랐습니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잘 마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몇일 동안이나마 사역을 잘 감당한 보람, 그 곳을 떠날 수 있다는 안도감,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 그리고 동시에 그 곳에 남겨진 선교사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 등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곳에 남겨진 선교사님 부부는 내일 또 다시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심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텐버로 돌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과 사랑을 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아야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있는 곳 어디서나 생명과 사랑과 복음을 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일주 박사
중동아프리카연구소 소장

이란 정국의 불확실성

5월 19일 이란 대통령 이브라힘 라이시의 사망으로 세계 언론들은 이란의 정국이 어떻게 바뀔지 전망 기사를 내놓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아라비아 뉴스 영자신문은 라이시의 죽음으로 혼란과 불확실성이 온건파에게 기회를 줄 수 있지만 오히려 강경 통치가 지속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압둘라흐만 알라쉬드는 대통령직은 국가의 거울이지만, 국가의 유일한 의사결정자는 아니라고 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 미국과의 화해 국면에는 이란의 하산 로하니의 ‘온건’ 대통령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과의 적대 국면에는 ‘강경파’인 라이시가 대통령직을 맡았다.

이란 국민들이 때때 보수주의자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라이시의 부재가 지역적, 국제적 화해를 향한 새로운 국면을 열어줄 것인가?

압둘라흐만 알라쉬드는 지금으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 달 후에 치러질 대선후보 추이와 대선 결과를 봐야 한다고 했다. 새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이란이 화해를 향해 나아갈지, 아니면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갈지 좀 더 지켜보자고 했다.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여전하고

알아라비아 영자 신문은 지금 이란이 라이시의 장례식을 마치고 새 대통령을 선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1989년부터 이란에서 최고의 종교적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혁명 수비대(IRGC)가 이란의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라이시의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레바논 언론인 후다 알후세이니는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으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가까운 의사결정그룹에서 이른바 ‘마슈하드(하메네이의 고향) 서클’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하메네이만 남았다 이란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라이시의 죽음 자체가 이러한 핵심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궤적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교 정책보다는 이란의 국내 정치가 갑작스러운 라이시의 사망으로 인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지역 안보에서는 그의 죽음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두고 볼 일이다.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사람들 중에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Khamenei)만이 남아 있다. 이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정치 현장을 떠났고 그 전에 하쉬미 라프산자니, 그리고 하산 로하니, 마흐디 카루비, 알리 아크바르와 알리 잔나티도 정치 무대를 떠났다.

다시 말하면 라이시의 죽음과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노령화와 함께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기초를 놓은 세대의 시대가 끝나가려 하고 있다. 이란 정권의 미래는 어디로 가나? 이란 국민과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4주 동안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리고 새로운 미래 지도자가 될지 추측하느라 분주할 것이다.

이란의 대외 정책, 화해의 손과 무기를 든 손

압드 알라호만 알라쉬드는 지난 수년간 국제사회에 보여준 이란 대외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화해를 위해 내미는 손과 무기를 쥔 소수 집단의 이념에 지배를 받는 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혁명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 그리고 예외는 있었지만 대부분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극단적인 측이 승리했다.

이란과 함께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예멘의 후스, 레바논의 히즈볼라 등이 라이시 대통령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란 정치 상황에서 본 한국인의 이슬람 이해

이란 정치권 안에도 이처럼 개혁과 보수, 강경파와 온건파들이 있고 아랍의 정치권 안에서도 개혁과 보수, 강경파와 온건파들이 상존한다. 화해하려는 무슬림과 무기를 들었던 무슬림이 있었다.

위 글과 다소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국내 이슬람 전문가가 최근 한국의 어느 일간 신문에서 알라와 하나님이 같다고 하면서 알라는 알일라의 축약형이고 알일라가 부르기 편하게 알라로 변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랍어 ‘일라흐’는 진리 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숭배받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고 고대 신화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일라흐를 알라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관사(al)와 ilah를 합치면 ‘알라(Allah)’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일라흐(al-ilah)’가 되는데 알일라흐는 알라의 99가지 이름들 중 하나이다.

‘알라’는 가장 지고한 필연적인 존재(al-wajib al-wujud)의 본질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이다. 따라서 알일라흐와 알라의 개념이 다르고 사용되는 범주도 다르다. 위와 같은 설명은 두 가지 아랍어 단어의 사전적 및 어휘적 설명에 불과하다.

좀 더 심층적으로 하나님과 알라 간의 개념을 살펴보려면 신론(본질과 속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두 공동체가 경전에서 이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심지어 이슬람 철학 역사에서 이븐 시나 등이 어떻게 신개념을 논의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언론에 실린 이슬람과 알라에 대한 이해는 학술적인 면에서 보면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Advisor Guides

<https://come-follow-me.org/advisor-guide>

Lessons 1-2

<https://come-follow-me.org/quick-start/taster>

Lesson 14 ‘Baptism’

<https://come-follow-me.org/quick-start/baptism-sample>



조완길 목사(D.Miss)
홍해선교회대표

기독교 세계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어린 손자가 시골에서 살고 있는 할머니를 방문했다. 할머니는 손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고 함께 놀아주었다. 다음 날 아침에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마을에 있는 야산을 오르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도토리를 주워 오라고 했다. 손자는 신이 나서 흩어져 있는 도토리를 많이 주워가지고 와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도토리를 이렇게 많이 주워서 무엇을 하려고요? 응, '이 도토리로 맛있는 묵을 만들어서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때 손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 도토리는 겨울에 다람쥐가 먹는 밥이어요' 할머니는 도토리를 보면서 묵을 생각했으나, 손자는 도토리를 동물의 밥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토리에 대한 할머니와 손자의 인식의 차이는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세계관이 작동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삶 그 자체이며 일상적인 경험의 문제다. 세계관은 문화권 속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되며, 문화권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계관의 차이는 긴장과 갈등을 일으킨다. 세계관이란 용어는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 판단적 비판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독일어 벨트(세계)와 안샤웅(관점)을 조합한 신조어다. 19세기에는 헤겔에 의해서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는 모르면 안 될 상투어가 될 정도로 유행하였다. 이것이 영국과 미국으로 전파되어서 월드뷰로 번역되었고 그 개념이 동아시아에 전달되면서 세계관 즉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착되었다.

세계관이 정립되기 전 중세 유럽의 문화는 기독교 전기 문화와 후기 문화로 구분이 된다. 전기 문화에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시기에 철학은 신학을 설명하는 학문에 불과했다. 그러나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 곧 기독교 세계관에서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여파로 프랑스 대혁명과 독일의 범신론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이 각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들은 중세 사람들에게 자연주의 세계관을 심어주었다. 이 사상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기본이 옮겨지는 것이다.

자연주의 세계관을 학문적으로 체계화 시킨 것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다.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세계관을 감각적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인식의 주체가 지성임을 강조하므로, 인간이 인식의 중심무대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헤겔(1770-1831)은 하나님이 절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의식 속에 스며들었고,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인간의식을 통하여 자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 버렸다고 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의존하는 의존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인간이 신에 대한 존재의식을 가질 때에 비로소 존재하는 신이 되었다. 빌헬름 딜타이(1833-1911)는 역사 안에서 객관화된 삶 곧 상대주의를 강조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하나의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유동적인 역사적 산물이며 그것도 하나의 세계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세계관으로 존재하며 어느 하나도 전체를 말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의 관점을 가질 뿐이라고 했다. 니체(1844-1900)는 사물을 인식하는 어떤 형태의 초월적인 근거도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자연이 존재하고 역사가 다스린다는 기초위에 삶을 해석하고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무신론적 세계관이 지성과 문화의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은 기독교 복음에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었다. 총체적 위기를 느낀 사람들이 모든 사물과 삶을 해석하는 틀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제임스 오어 (James Orr 1844-1913)와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있었다. 오어가 세속의 공격으로부터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기독교 세계관이다. 기독교가 직면한 도전은 기독교의 특정한 교리에 국한된 공격이 아니라 세상과 삶의 전 영역에서 밀려드는 총체적 공격이었다. 따라서 오어의 신학적 과제는 기독교의 특정한 교리를 방어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하나의 총체적인 세계관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현대주의 세계관을 하나님 주권에서 인간 주권으로 옮겨간 새로운 형태의 종교라고 정의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세계관의 전쟁은 단순히 종교와 과학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체계와 인간 중심적인 삶의 체계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주의 세계관 이후에 나타난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의 범신론적 일원론, 종교 없는 영성을 주장하는 뉴에이지, 모더니즘에 반하는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이슬람 세계관으로부터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의 믿음이 필요하다.

BC 516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지만 성벽이 없으므로 외적의 침입이 잦았다. 느헤미야는 하나니로 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에 금식하고 왕에게 간청하여 성벽을 건축하게 되었다(파악. 보완. 분업).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는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과 같다(느4:17-18). 기독교 세계관의 중심 내용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노영환 선교사
인도선교사. 인도바이블칼리지 교수

검은 아프리카 선교 (1)

선교열전의 저자 루스는 아프리카 선교는 “백인의 묘지”라고 불렀던 만큼 다른 어느 곳보다도 많은 개신교 선교사들의 목숨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복음 전파를 위한 희생이 컸던 만큼 아프리카 선교는 또한 많은 결실을 맺었다. 아프리카 선교는 아시아에 비해 뒤늦은 출발을 했으나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기독교가 확장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개신교 선교회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어느 지역 보다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이 증가되는 열매를 거두고 있다. 선교열전의 기록에 의하면 아프리카에서 근대 선교가 시작된 것은 18세기 모라비안들에 의한 케이프 식민지 선교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그 후 18세기 말에는 런던선교회, 19세기 중반에는 침례교, 성공회, 장로교 등이 아프리카 선교에 참여하게 되어, 19세기 말에는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에 선교사들이 들어가 사역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헌신하였지만 또한 아프리카 선교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그 이유로는 선교사들이 선교를 위해 식민주의 또는 제국주의와 야합하는 경우가 있었고, 선교와 아울러 아프리카에 유럽 문명의 강제 이식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선교사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많은 아프리카 선교사들은 악한 식민주의와 투쟁하였다.

그들은 식민주의자들의 노예무역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들과 투쟁하였다.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또 한가지 비난은 사회과학자와 인류학자들에게서 나왔다. 그들은 기독교 선교가 아프리카 선교의 전통문화를 파괴하였다고 선교사들을 비난했다. 물론 일부 선교사들이 그들과 친숙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문화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원시 사회의 문화 관습에 기독교를 제대로 토착시키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루스가 지적한 대로 아프리카 문화의 많은 부분이 건전하지 못한 것이었고 따라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아프리카인들은 부족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갔으며, 쌍둥이 살인, 식인 행위, 인간 제사, 요술등으로 그들 스스로 많은 희생을 가져왔다. 이러한 나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선교사들의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오늘날 기독교가 아프리카에서 부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 3회에 걸쳐 남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모팻(Robert Moffat),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선교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 그리고 여성으로서 어떤 백인도 살아남지 못했던 지역에서 아프리카 원주민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했던 여성 선교사 메르 슬레서(Mary Slessor)를 소개하고자 한다.

홍해 선교회 2024년 한국 세미나 성료

지난 6월 10일 안양시에 있는 중동선교회 센터(회장:홍계현목사)에서 홍해선교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조완길 홍해선교회 대표께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고, 둘째 시간에 이지호 박사께서 “성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공일주 박사께서 “개종한 무슬림 제자 훈련”과 “무슬림 선교 방법”을 강의해 주시므로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홍해선교회는 2010년 2월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서 설립된 비영리 선교단체입니다.

홍해선교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슬람 연구 (조완길저서:아랍인의 세계관)
2. 이슬람 세미나 인도(미국과 한국에서 15회 인도)
3.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 선교(노상.마켓.방문)
4. 전문인 선교사 양성(MMITA훈련)
5. 홍해선교지 발행(계간)
6. 선교사 파송(현재 2개국에 선교사 파송함)
7. 한국지부와 협력 사역(E국 열매비전센터)

케냐 Kang 선교사님 사역 보고

동력자님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부부도 중보해주심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 곳에 당면한 현지 상황들이 날이 갈수록 더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 보다 더한 중보의 동력을 요망하오
니~~

아래와 같이 능력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아. 래. -

1) 오랜 기근으로 인해서 기아선상에서 ~

불현듯 예고없이 전무한 대 폭풍과 폭우로~ 피곤히 잠든 백성들
을 가옥과 같이 모조리 싹 쓸어가므로~

수 많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하는 대 천재지변으로 ~ 현
재 상황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수 많은 수재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구제와 구호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태어날때부터 항문이 없이 태어나서 배설 문제로 물과 우유만
마시며 딱딱한 음식을 먹지를 못하므로 곧 생명을 유지할 수가없
게 된 ~ 현재 2세된 남아와 3세 여아 그리고 16세 된 소녀 등 3명
이 2023년 7월과 9월에 "인공항문형성수술" 을 성공적으로 마쳤는
데 ~ 2024년 4월에 마지막으로 완전한 2차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
마치므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있게 되었습니
다. 이 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케냐국에 대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생사의 문제로 온 나라가
대 혼란에 빠져있으므로~~

강, 절도 납치 살인 탈취범들이 전국 곳곳에 난무하고 있으므로
매일 사고 및 살인 사건 뉴스가 온 국민들의 생활을 불안초초하게
하므로~~ 속한 평화와 안전한 나라가 될 수있도록 위하여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님들께, (E국 Cho 선교사)

불 속 같은 날씨 입니다. 사우디에서 천명 넘는 매카 방문객들이 더위때문에 숨졌다는 소식도 접합니다.

한 모금 물을 구하는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 삶은 더욱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FVC(열매비전센터) 소식으로 소망되고 기대되는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1. 실링펜 교체했어요! 그동안은 그런대로 수업엔 지장이 없었는데 너무 더웠어요(현지인들도 처음 겪는 더위랍니다) 그래서 천장 쿨링팬 들을 전부 수리, 교체하게 되었어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비용은 홍해선교회 미국본부에서 전액 보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더위엔 물놀이가 최고지요! 유치원 아이들, 선생님들 다같이 수영장에 다녀왔어요. 뭐~ 말씀드릴꺼 없이 최고! 였지요. ㅎㅎㅎ

2. 여름특강은 계속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모임과 공부를 멈추게 할순 없습니다. 여름특강들, 음악수업, 영어회화반, 태권도반, 요가, 그리고 기존 모임들. 공예반 수업, 여자 축구팀, ETI 유치부 영어수업(마리안 선생님), 금토 방과후 수업(마리암, 이린이 선생님) 등, 아무리 더워도 우리의 모임을 막을순 없습니다.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와 격려를 ~~

3. 기도 부탁 드렸듯이 가을부터 새로운 사역을 준비중입니다. 아랍어 문맹자 수업, 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한 영어교사를 위한 강의, 그리고 아카데미안에 샌드위치, 햄버거 사역,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것임을 믿기에 마음을 먼저 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8 월말 여름성경학교 5 박 6 일을 위해서입니다. 작년 경험을 살려서 준비중인데 100 명정도가 먹고 자는 여름캠프 라서 일인당 3 만원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재정으로 도와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엡 3: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하는 자가 됨이라)

5. 마지막 기도 제목이자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열매비전센터가 교육센터로서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꼭 기도해 주십시오. 불타버릴 이땅에서 남는 것은 예수그리스도 이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Song 선교사 모로코 선교 계획서(10/29/24~11/22/24)

●어린이 사역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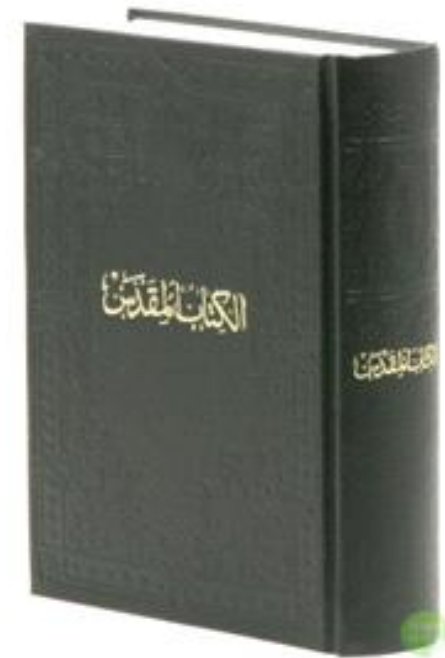
1. Coloring 시간 과 대회: 성경 중심의 내용을 담은 그림을 색칠하면서 내용을 설명해 준다.준비물: 컬러링 책 (30권), 크레파스 (30), 상품 (색연필 세트 3)
2. 축구 시합 : 나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함께 어울리며 서로 이름을 알아 간다.준비물: 축구공 (2개)
3. 청결 교육: 손과 치아 청결에 대해 교육한다.준비물: 칫솔, 작은 치약, 손 세정제 (각 40개)
4. 하루 한끼 식사 제공: 참석한 어린이들에게 하루 한끼 식사 제공하며 스푼 사용을 권장한다.준비물: 음식, 스푼 (30명분)

●청년 사역 (7~10일)

1. Face Mask : 여성들과 티 타임을 가질 때 Face mask 를 붙여준 후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약간증을 나눈다. 준비물: Face Mask (30 개)
2. 아랍어 사영리 전달 : Settate, Berrechid, Rabat, Casablanca 에 기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형제, 자매들과 또한 기차 안에서 만나는 청년들에게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는타이틀의 아랍어 사영리 쪽 복음서를 나누어 준다.:준비물: 아랍어 사영리 복음서 (50권)

●가정 사역 (10~12일)

1. 화장실 개조: 바닥에 주저 앉는 옛 화장실을 좌식으로 된 화장실로 현지인을 고용하여개조한다.준비물: 비용 (한 집당 \$400 가량 - 2 가정 정도 계획)
2. 비상약 나눔: 각 가정당 진통제, 밴대, 손 세정제를 나누어 준다. 준비물: 애드빌, 타이레놀, 밴대 박스, 손 세정제 등 20 가정 정도
3. 어린이 옷 나눔: 각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필요에 따라 옷을 나누어 준다.준비물: 어린이 옷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4:12

중보기도제목



공요셉 선교사

- *건강함으로 이슬람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의 제자훈련을 위하여
- *기독교인을 위한 아랍어 교육을 위하여



S국 S 선교사

- *아라비아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소서
- *시내산 성지순례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 *현지 한인 그룹의 제자 훈련을 통해 변화가 있게 하소서
- *한국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E국 J 선교사

- *아브라함 가족 공동체의 은혜안에서 성장해가도록
- *뇌전증을 앓고 있는 B가 주님을 만나 영육이 강건하도록
- *난민들의 노동현장과 생계비를 위하여
- *난민 학교가 더 많이 세워져서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E국 C 선교사

- *아랍어 문맹자 수업을 위하여
- *영어 교사를 위한 강의를 위하여
- *샌드위치 햄버거 사역을 위하여
- *여름성경학교를 위하여(8월)
- *여름특강을 위하여
- *비전센터가 교회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홍해선교회

-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위하여
- *K 선교사님의 S국 사역을 위하여
- *S 선교사님의 M국 사역을 위하여
- *한국지부와 E국 비전센터를 위하여

중보기도제목



Iranian Christians International Mission

- *Iranian Christians International의 발전을 위하여.
- *ICI에서 섬기고 있는 미국내 난민의 복음화를 위하여.
- *ICI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 *ICI에 속한 난민들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Arabic Bible Church Denver (ABCD)

- *Ayman Armanious 목사님의 영력을 위하여
-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ABCD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 사역을 위하여
- *덴버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 *저술 활동과 방송 사역을 위하여(Ay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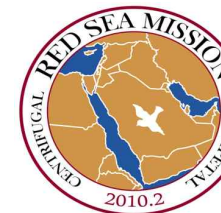
K-S국 K 선교사

- *K국 성도들의 회개, 영적대각성, 부흥을 위하여
- *홍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이재민을 위하여
- *인공항문 수술로 새생명을 얻은 3명의 어린이를 위하여
- *심각한 사회 치안을 위하여
- *선교사님 내외분의 건강, 성령충만, 사역을 위하여



M국 S 선교사

- *2024년 2차 선교여행(10월25일-11월27일)을 위하여
- *어린이 사역(2-3일) 청년 사역(7일-10일)을 위하여
- *2가정 현대식 화장실 시공을 위하여(10일-12일)
- *이번 여행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홍해선교회 KOREA

- *후원하고 있는 6기관의 성장과 사역을 위하여
- *애급 비전센터를 기도와 재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 *15명의 선교사님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 *임원들과 회원들이 협력하여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